	보도자료 PRESS RELEASE	제공 기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세계전기차협의회	
	2023년 2월 23일	문의	064-702-1580	

제2회 국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5월 제주 개최

- 5월 2~4일 제10회 국제전기차엑스포서 개최…국내·외 대학생 실력 겨뤄
- 하드웨어 부문 AA·소프트웨어 ADSC 등 3개 종목…조직위·집행위 출범

국내외 대학생들이 미래자동차의 대표적인 핵심기술인 자율주행기술을 겨루는 '제2회 국제대학생 EV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오는 5월 2일 제주에서 개막한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주최하고, 제2회 국제 대학생 EV 자율주행 경진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5월 2~4일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조직위가 23일 밝혔다.

조직위는 이에 따라 오는 3월 24일까지 국내·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 발전과 자율주행 자동차 인력 양성 등을 위해 개최하는 올해 대회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 종목인 AA(AI Autonomous)의 경우 참가 키트(모형 차량) 크기에 따라 5분의 1과 10분의 1로 나눠 열린다.

또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자율주행차 경진 종목인 ADSC(Autonomous Driving Simulation Challenge)도 진행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설명회는 3월 31일 개최되고, 4월 5일 본선 참가팀이 결정된 후 온라인 교육도 실시된다.

조직위는 지난달 4일 출범식을 열고 ▲송응순 법무법인 세종 고문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일환 제주대 총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 ▲이정열 중부대 총장 ▲최외출 영남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이상 가나다 순)으로 위촉했다.

또 ▲김시호 연세대 교수 ▲문희창 홍익대 교수 ▲사종엽 영남대 교수 ▲송왕철 제주대 교수 ▲이은경 호남대 교수 ▲하성용 중부대 교수(이상 가나다 순)를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해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처음 열린 경진대회에는 전국 27개 대학에서 114개팀이 출전해 자율주행 기술을 겨뤘다.

조직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 기술력 확보와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을 만큼 자율주행은 미래차 기술의 핵심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번 ‘제2회 국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대한민국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열린 ‘제1회 국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실력을 겨루고 있다.